위급한 코로나 바이러 스 상황에 마주친 이 시점에 전하는 단장 몬시뇰의 제안

오푸스데이 단장 페르난도 오 카리스 몬시뇰은 이 같은 보기 드문 상황이 닥쳐옴에 따라 몇 가지 실용적인 방침을 제안했 습니다. "성인들의 통공은 다 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만들도록 이끕니다. '한 지체 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기' 때문입니 다."

2020-3-16

크고 작은 정도 안에서 코로나19 바 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유행이 확산 될 수 있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주 님 안에서 우리의 용기를 새롭게 하 고 "신앙의 힘과 희망의 확신과 열렬 한 사랑으로" (프란치스코 교황, 2020 년 3월 8일 메시지 중에서) 이 상황을 직면하도록 다짐을 새로이 합시다. 세상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. 그러나 성인들의 통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만들 도록 이끕니다. "한 지체가 고통을 겪 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기 (코린1 12:26)" 때문입니다. 어떠한 응급상황 속에서도,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

들, 생존을 위해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(요즘 일어난 시리아 탈출)과 비극을 경험한 가족 등 지금과 같이 위급한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일치 시킵니다.

몇몇 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보통의 일상과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응급상황입니다. 이 러한 불확실함의 환경에서 조차 성화를 하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우리의 외적인 일을 줄일 때 "내면이 성장"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을 알면서, 급변하는 상황에 맞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줍시다.

유행병이 퍼지는 것에 반응할 때, 각 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예방과 통제를 위해 몇 가지 지침들을 제공 합니다. 이를 따르려면 노력과 불편 함이 수반될 수 있으니 성 호세마리 아의 조언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: "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우 호적으로 살게 될 행동 방법을 사랑 하고 존경하십시오. 의무에 대한 당 신의 충직한 복종이, 다른 사람들이 성스러운 사랑의 열매인 그리스도인 의 성실성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찾아 내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 하지도 마십시오" (밭고랑 322). 열심 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과 일반적 으로 좋은 사회를 위하여, 교회 당국 역시 성사 참례에 관하여 사목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. 우리는 이러한 사목적 배려를 우리의 어머니이신 교 회의 신뢰 속에서 감사하게 받을 것 입니다. 역시 이점과 관련하여 필요 할 경우, 불필요한 위기를 발생시킴 이 없도록 계획된 영성 교육의 활동 을 매우 신중하게 공식적으로 연기하 는 것도 좋습니다.

함께 모이는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와 교회의 신중한 조치가 발생할 때, 우리는 특히 우리의 사도적인 임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을 계속

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첫 째로 오푸스데이의 모든 사람들과 여 러분의 친구들과 회원들의 가족들에 게 그들은 서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을 보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. 예 를 들어, 우리는 조금 더 자주 그 동 안 보지 못했던 친척과 친구들을 포 함하여 그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 습니다. 우리는 영성 교육의 수단으 로 최첨단 기술이 주는 모든 가능성 을 활용해야 합니다. (서클, 대화, 묵 상, 담화, 등.) 또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나눠야 합니 다. (오푸스데이 웹페이지 www.opusdei.or.kr 에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으며 글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위한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.) 우리는 사순시기 동안 평일 미사성제의 독서와 기도를 묵상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.(교 황님의 매일 미사는 www.vaticannews.va 에서 생중계됩 니다.)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

떻게 더 사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체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예외적인 순간이고 아무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 돕고 자선을 실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.

지방 자치 단체에서 내려온 지침과 주어진 환경 존중하면서 가능한 정도 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다 른 사람들을 돕는 창의적인 방법을 띠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(이웃, 동료, 등.) 특별한 지향은 더 취약한 사람, 특히 환자들과 연로한 사람들 에게 주어져야 합니다: 우리는 우리 가 그들의 영 육간의 돌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중함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.

사회적 접촉에 관한 규범이 더 엄격 한 곳에서는, 우리는 센터 비 상주 독 신회원들(Associates)과 기혼가능 회 원들(Super Numeraries)과 친구들의

집에서 그리고 오푸스데이의 센터에 서 역시 창의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야 합니다. 이러한 환 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우정과 형제적 인 기회를 발견하도록 노력합시다. 다음의 몇 가지 태도들과 활동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: 어려 움과 예상하지 못한 짜증나는 것들을 마주칠 때 유머 감각으로 이겨내기: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; 독서와 동영상 시청을 위한 계획을 생각하 기; 자녀들이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이 나 오락을 계획하기; 나태해질 수 있 을 정도로 편안한 시간에서 벗어나 기: 집에서 운동하기, 등.

요즘 같은 시기에 희생의 관대한 정 신으로 섬기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특 별한 감사를 보여줍시다. 그들의 일 안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 여주고 그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하도 록 노력합시다. 그리고 특히, 이 기간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"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"으로서 주님께 더 가까 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 시다.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빕니다! 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로마, 2020년 3월 14일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wigeubhan-korona-baireoseusanghwange-majucin-i-si/ (2025-12-10)